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14>

선재동자의 참회와 발원

사리불을 따라온 6천 비구들에게 보살심을 확고하게 심어 주고 그들에게 권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을 품소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 후, 남쪽으로 나아가 가던 문수보살은 북성(福城)의 동쪽에 있는 장엄당 사리굴에 이르렀다. 이곳은 옛적에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던 곳이며, 세존께서도 과거에 보살행을 닦으셨던 곳이다. 문수보살이 이곳에서 '법계를 두루 비추는 경'을 설하니 무수한 중생들이 불도를 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북성으로부터 무수한 대중이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에 선재동자도 있었다. 문수보살은 선재동자가 과거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며 선근을 많이 심었고, 온갖 지혜를 구해 법기(法器)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선재동자와 대중들을 위해서 모든 부처님에 관한 법을 설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했다.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을 들은 선재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구하며 다음의 계승을 설한다.

삼계는 생사의 성곽이 되고, 교만한 마

음은 답장이 되며, 윤회의 여러 길은 문이 되고, 애욕의 물은 못이 되었네// 어리석은 어둠에 덮이여/ 탐욕과 성내는 불이 치성하니/ 마왕은 임금에 되어/ 어리석고 공매한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해 있고// 탐심과 애욕은 묶는 노끈이요/ 아첨과 속이는 일

진실한 법 구해 깨달음의 삶 살 것 기원

“모든 중생 이익 주는 수레 타게 하소서”

고삐가 되며/ 의혹이 눈을 가리어/ 샷된 길로 나아가게 하네// 간탐과 질투와 교만이 많아서 각 경전들에 보이는 교설의 차이점을 길에 떨어지면/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로다// 묘한 지혜 청정한 해님의/ 가없이 여기는 원만한 바퀴/ 번뇌의 바다 밀리시나니/ 바라건대 나를 살피 주소서// 묘한 지혜 청정한 달님의/ 인자하고 때 없는 바퀴/ 모든 이를 인라케 하시니/ 바라건대 나를 타게 하소서// 보현의 행으로 두루 장사하였고/ 자비한 마음 천천히 굴러서/ 어디로

다니시니/ 바라건대 나를 가르쳐 주소서// 참는 갑옷 입으시고/ 손에는 지혜의 검을 들어/ 마군을 자재하게 항복받으시니/ 바라건대 나를 구제하소서// 삼계의 생사 범부의 집이요/ 의혹과 짓는 업 여러 길의 원인/ 보살께서 모두 조복시키시니/ 등불처럼 나의 길을 비취 주소서// 여러 나쁜 길 여의시고/ 모든 착한 길 깨끗하게 하여/ 세간을 초월하신 이시니/ 해탈의 문을 보여 주소서// 부처님의 바른 소견에 머물고/ 부처님의 공덕나무 기르며/ 부처님 법의 묘한 꽃피 내리시니/ 보리의 길을 보여 주소서// 온갖 업 잘 아시고/ 여러 승(乘)의 수행을 통달하시니/ 결정한 지혜 가지신 이어/ 마하연 [大乘] 길을 보여 주소서// 서원은 바퀴, 자비는 속바퀴/ 신심의 굴대[軸] 참는 건 굴대빗장[轄] 공덕보

가나 길이 없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 하소서// 업과 번뇌를 깨끗이 하며/ 해매는 고통 끊어버리고/ 마(魔)와 외도를 꺾어 부수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 하소서// 지혜는 지방에 가득하고/ 장엄은 법계에 두루하여/ 중생의 소원 만족케 하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 하소서// 청정하기 허공과 같아/ 애욕과 소견 없애버리고/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 하소서// 네 가지로 거두주는 원만한 바퀴/ 다 지니는 청정한 광명/ 이와 같은 지혜의 해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법왕의 지위에 이미 들었고 지혜의 관을 이미 쓰셨고/ 법의 비단을 머리에 댄나니/ 바라건대 나를 돌봐 주소서//

이 계승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리석고 허망하여 고훘에 빠진 것이임을 탄식하고, 이를 깊이 참회하며 진실한 법을 구하여 깨달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발원하면서 문수보살에게 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어둠이 어둠을 없앨 수 없다. 빛이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빛은 어둠을 발견하게 해주면서 또한 어둠을 없애준다. 빛에 의해 발견된 어둠의 인식과 그에 대한 반성과 부정이 어둠을 없애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회와 발원(發願)이라고 하는 종교심이다. 종교심이란 빛과 어둠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썩듯게 되는 참회를 바탕으로 한 원심(願心)인 것이다. 선재동자가 설하는 계승을 통해서 진실한 종교심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극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활약하였다. 이때 선의 남종을 대변하는 혜능(慧能, 638-713)은 조계 보림사에서 은둔하면서 선종을 크게 선양하고 있었다. 한한도에서 널리 유행한 덕이본(德異本) <육조단경>에 의하면, 신통(神通) 2년(706)에 축전황후와 중종이 조서를 보내 초청했지만, 혜능은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당조의 초청 사실이 20세기에 발견된 돈황본 <육조단경>이나 일본에서 유통된 혜능본 <육조단경>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혜능의 선종이

이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들의 교관에 참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보여진다. 화엄에서는 선을 돈교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자신들의 화엄 교관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만큼 선종이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지엄과 법장 대보다는 혜원(慧苑, 673-743)과 징관(澄觀, 738-839)의 돈교논쟁을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이는 선종을 교종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화엄종에서는 내부의 교관 논쟁이 있지만, 실제로 선과 화엄의 관계설정 혹은 종파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논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선의 입장에서 보면 선사상을 화엄교관 아래에 두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결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은 선과 화엄의 갈등관계는 화엄의 교관론에서 비롯된 바가 크고, 돈교논쟁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선종을 화엄의 교관에 포섭하려는 이런 징관의 노력에 대해서, 선의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보조(1158-1210)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인경(禪堂담원주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당시 화엄종은 강력하게 대두하는 선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 분명하고,



집합 무의식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그것이 심, 의, 식이라는 3층 구조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심(心)이란 오늘날 용어로는 집합무의식이고, 의(意)는 개인 무의식이며, 식(識)은 표면의식이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는 자유 연상법이나 꿈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마음의 존재를 발견하였다. 특히 주목할 일은 거의 혼자서 표면의식의 배후에 감추어진 거대한 또다른 의식층인 무의식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프로이드 이후 프로이드의 제자이었던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꿈이나 환각의 내용 중에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과는 전혀

용 심리학자 빅터 만스필드는 'EPR 사고실험'을 가지고 융의 동시성을 설명한 바 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동료 제자인 포돌스키와 로젠과 함께 중요한 사고실험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약자를 따서 'EPR 실험'이라고 부른다. 이 실험에서 초기 상태에서는 상호작용이 있었으나, 그 이후 서로 분리된 양자적 대상인 S1과 S2의 두 체계를 상정하였다. S1과 S2는 물론 공간상으로는 분리되었다. 그런데 S1에 외부의 영향력을 주어 S1을 변화시켰을 때 아무 관계도 없는 S2가 동시적으로 S1의 변화값만큼 변한다. 이 EPR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전자(電子)와 다른 전자 사이

인류, 진화하면서 경험했던 기억 저장

시간 개입없이 정보 주고받는 場 존재

다른 별개의 무의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계의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각 민족의 종교와 신화를 수집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전 인류는 공통된 내용의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을 집합 무의식이라 불렀다. 다시 말하면 집합 무의식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집합 무의식 내에 모두 똑같은 내용의 의식이 저장돼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집합 무의식의 내용에는 인류가 단세포로부터 지금까지 진화하면서 경험하였던 모든 기억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인간의 집합 무의식 층에 똑같은 내용의 기억이 저장될 수 있었을까? 칼 융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시성(同時性)의 원리를 제시했다. 이 동시성의 원리는 당시 논의되고 있던 양자 물리학 이론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칼 융은 당시의 양자 물리학자들이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들 물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의 정보소통에 있어서 시간의 개입이 없이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장(field)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EPR 실험은 순전히 사고 실험이었지만 1982년 프랑수아 아스페(Arthur Aspect)의 세련에 걸친 실험에 의해 결정적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빅터 만스필드는 우주 허공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장(場)에 의해 충만해 있으며, 이 장(場)은 양자물리학적으로는 바로 양자파동이라고 했다. 융 심리학적으로는 집단무의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 무의식으로 충만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집합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어 한 개인의 집합 무의식 내용은 인류 전체의 집합 무의식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③

돈교논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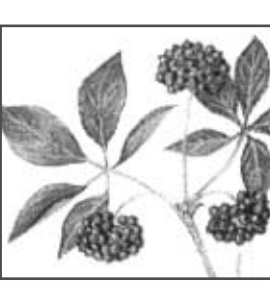
화두가 개념과 언어적인 체계를 해제하는 기제가 된다면, 그것은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는' 돈교(頓教)와 동일한 형태에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법장은 <오교장(五教章)>이나 <탐현기(探玄記)>에서 돈교를 '소승(小乘), 대승시교(大乘時教), 대승종교(大乘終教), 돈교, 원교(圓教)'라는 화엄의 오교판(五教判) 가운데 네번째에 배치하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정의했다. 만약 화두가 가지는 대상 부정의 기능적인 측면을 말과 생각을 끊는 돈교와 같은 종류로 파악한다면, 선문의 간화선 수행은 교화에서 말하는 돈교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에서도 발생한 마찬가지로 문제였다. 동북아 전역에서 종파불교는 경전의 역경과 더불어 여러 각 경전들에 보이는 교설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들 사이의 정통성을 논쟁하면서 비롯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자신들의 사상을 확립하여 갔다. 화엄종과 선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화엄은 지엄(智儼, 602-668)에 의해서 하나의 학파로 독립되었다. 지엄은 뛰어난 두 제자를 배출하였다. 한 사람은 중국화엄을 체계화시킨 법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해동화엄의 원류가 된 의상대사다. 법장(法藏, 643-712)은 축전무후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선종의 신수(神秀, 606-706)

선·화엄 관계설정, 종파 정체성 확립

널리 중원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개원(開元) 20년(732) 황대(滄臺)에서 북종 신수의 선을 점수라고 비판하고 돈오의 남종이 선의 정맥임을 강조한 신회(神會, 670-762)의 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압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가품이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개월만 음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탕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히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음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노년층
-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 또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노년층
- ◇ 기력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입금확인 후 1-2일 이내 배송. 계좌번호 (예금주 김현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공급업체 : 케이앤알링크 / 홈페이지 : http://www.knr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자 내용

- 제 1장 영가의 실제.**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정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종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 **법당 및 요사채 불사 동참** [우리은행 551-215163-02-001 성거사]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 567-6822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미·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하신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인연이 되어 옛부터 금강산에서 전해오던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기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에서 마가목의 효능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에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께분량을 법제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품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중팔)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대진 합장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